

보성군 악취민원 5년새 73% 감소...저감사업 주효

미세먼지차단 숲 조성·가축분뇨 처리 지원 등 성과 야간 순찰 강화도...보성을 축사악취 외 한건도 없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가축 분뇨처리 지원, 퇴비 부속도 무료검사, 탈취제 살포.’ 보성군의 다각적인 환경개선사업에 힘입어 군 내 ‘악취 민원’이 5년새 무려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성군에 따르면 악취 민원이 지난 2020년 79건에서 2024년(8월말 현재) 21건으로 58건이나 줄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보성읍의 경우 2020년 27건의 악취 민원이 2024년 7건으로 줄었으며, 이중 축사민원을 제외한 악취 민원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놀라운 악취 감소는 보성군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악취 민원 제로화’ 중장기 사업들이 주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악취 민원 제로화’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축사악취 개선 사업·악취방지시설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은 축사 밀집 지역 인근의 보성을 우산교차로에서 장거리 교차로까지 2.1km의 미세먼지 숲길을 만들어 악취 유입 억제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

주민 건강을 위한 산책 코스로도 자리매김했던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은 2022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의 우수시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음은 악취의 가장 큰 주범인 축산농가의 악취를 줄이기 정책이다. 64개 농가에 대한 10억원 규모의 축사악취 개선 사업과 가축 분뇨처리 지원 사업이 악취 저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다.

또 10개 사업장에 악취 방지시설을 지원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퇴비의 부속도 검사를 무료로 시행해 발효되지 않는 퇴비가 농경지에 살포돼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했다.

아울러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은 여름철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배출이 예상되는 지역에 악취 저감 탈취제를 살포하고, 악취 배출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한 것도 주효했다. 이밖에도 악취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연중 민간 감시원을 채용해 관련 사업장에 대한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악취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등 군민들이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결과는 주민들이 시원한 밤공기를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 보성 만들기에 매진한 노력의 결실이다”면서 “앞으로도 악취 저감 등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한예종 학생들과 ‘음악AI’ 콜라보 구례 담은 애니메이션·노래 ‘화제’

힐링·감성 여행지 이미지 살려

예술대학생과 인공지능(AI)이 합작한 구례군 애니메이션과 노래가 화제다. <사진> 주인공은 바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학생들과 ‘챗GPT’, 음악AI인 ‘SUNO AI’이다.

이번 작품들은 구례군과 한예종의 협력사업(레저디자이너 캠프)으로 지난 8월 구례에 1주일간 머물렀던 학생들이 구례의 아름다움과 정겨움을 AI를 통해 애니메이션과 노래에 담은 것이다.

한예종 학생들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무한

한 인공지능 기술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구례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구례를 떠나는 학생들의 아쉬움을 담은 노래 ‘안녕 구례’는 챗GPT와 SUNO AI로 만들어진 곡으로, AI가 직접 여행이라도 한 듯 힐링과 감성 여행지인 구례의 이미지를 담고 9 있다.

이번 영상과 노래는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구례군 홍보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며, 구례군청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gurye_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시, 생활 현장 찾아가 시민 불편사항 직접 듣는다

다음달 12일까지 ‘시민 읍부즈만’ 14개 읍·면·동 순회 고충민원 해결

여수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여수시가 10일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시민 읍부즈만’을 시행,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에 나선다.

읍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현재 여수시 읍부즈만은 시가 위촉한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0일 중앙동을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14개 읍·면·동을 돌면서 시민들의 민원 사

항을 청취한다. 상담은 사전예약 또는 당일 현장 예약으로 가능하다. 읍부즈만은 개별상담을 통해 단순 민원 사항 등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60일 이내 처리결과를 알리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평소 적절한 대응없이 일상처럼 겪어왔던 행정적 불편사항을 시가 나서서 해결해줌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아져 살기 좋은 고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도 얻게된다.

다음은 읍부즈만의 순회 일정이다. ▲중앙동(10월 10일) ▲화양면(10월 22일) ▲쌍봉동(10월 23일) ▲월호동·국동·대교동(10월 28일) ▲소라면(10월 30일) ▲울촌면(11월 5일) ▲돌

산읍(11월 6일) ▲여서동·문수동(11월 7일) ▲시전동(11월 8일) ▲연전동(11월 11일) ▲화정면(11월 12일)이다.

한편 시는 읍부즈만 운영을 위해 지난 6월 제4기 읍부즈만 위원 2명(임채성·윤혜국 위원)을 위촉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예약 또는 당일 현장 예약하면 되며, 개별상담을 통해 단순 민원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60일 이내 처리결과를 알릴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게 됐다”며 “각종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정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14일부터 5일간 이륜차 출장검사

광양시의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가 14일부터 5일간 시행된다.

이번 출장검사는 검사소 방문이 어려운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출장검사에서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소음(배기소음·경적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검사 대상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다.

또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5년 2월 28일까지의 이륜자동차도 검사대상이다. 정기검사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 후 받게 되고, 최초 정

기검사 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출장검사 일정은 ▲14일-오전 진월면, 오후 진상면과 다압면 ▲15일-오전 옥곡면, 오후 광영동 ▲16일-오전 옥룡면, 오후 봉강면 ▲17일-오전 태인동, 오후 금호동 ▲18일-출장 검사 추가 필요 지역이다.

검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휴식 12시~1시)이며, 이륜자동차 신고필증·보험 가입 증명서·검사수수료를 준비해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061-797-2795)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대성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구인구직 플랫폼 ‘굿잡광양’ 활성화 팔 걸었다

확대간부회의 홍보 방안 등 논의 국도비 확보·정부평가 총력 다짐

광양시가 최근 개발한 구인구직 플랫폼 ‘굿잡광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살·단·과장 이상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가 의욕적으로 개발한 일자리 종합 포털인 광양형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굿잡광양’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 시장은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필요한 양방향 종합 일자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굿잡광양’을 상시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또 회의에서는 2025년 국·도비 확보와 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우수’ 획득을 위해 모든 부서가 막바지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공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정 시장은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수산물유통센터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유휴 공간으로 확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광양시가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10월 확대간부회의 열고 당면 현안을 점검했다. <광양시 제공>

방안을 고민해볼 것을 지시했다. 또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와 감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중요한 경우 중앙정부에 법 개정 등의 건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린PC 보급계획 수립 ▲제4회 광양 K-POP 페스티벌 추진 철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가로수 식재 ▲2024년 교통량 조사 추진 철저 ▲매실과원 전정 지원사업 관련 사전 안전교육 시행 등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광양=김대성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 500명 인권·안전 교육

공영민 군수 등 참여 격려

고흥군이 지난 8일 고흥문화회관 관연수실에서 고흥시니어클럽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 현장에는 공영민 고흥군수와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군의원 등이 참석해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고흥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고흥군 내에서 유일하게 3개 유형(공익형 1·사회서비스형 3·시장형 7) 11개 사업단(1755명)을 운영하고 있다.

고흥시니어클럽은 또한 지난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해 고흥 남계 1단지 내 공동시설의 무상 사용권을

확보했으며 해당 공간을 리모델링해 연말까지 사무실과 시장형 은빛카페사업단을 이전할 계획이다.

앞서 고흥군은 지난 7월에는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참여자 315명을 대상으로 참여자 교육을 진행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리 고흥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만 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전국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장소 지역이다”며 “이렇다 보니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가 최우선이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다. 어르신 인구가 많은 만큼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고흥=주자중 기자 gju@kwangju.co.kr



공영민 고흥군수가 지난 8일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대상 노인 인권 및 안전 교육 현장을 방문 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곡성군 내달 13일까지 도예가 김철우 초대전

청색톤 도자기 등 150여 점 전시

곡성군이 도예가 김철우 작가 초대전을 다음달 13일까지 갤러리 107과 스트리트 갤러리 4동에서 개최한다.

가을 기획전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김작가의 모노 톤과 청색 톤의 도자기 작품 150여점이 선보인다.

이번에 초대된 김철우 도예가는 현재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 도자학회 광주지부장, 광주·전남도예가회 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 전승 공예품 운영위원과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예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흙이라는 자연의 본질적 의미에 접근하고 본연의 순수함을 보여 줌으로써 관람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갤러리 107은 전시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개방되며, 휴관일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김철우 초대전 포스터.

20일까지 여순 10·19-제주 4·3 미술 교류전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여수시와 제주도의 역사적 아픔을 위로하고 평화의 도시로 거듭나길 기원하는 창작품 전시회가 지역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여수시는 여수·순천 10·19사건과 제주 4·3사건을 주제로 하는 여순-제주 미술 교류전인 ‘잠들지 않는 남도의 세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로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미술 교류전은 오는 20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B동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양 지역의 교류를 통해 쌓아 올린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미술 작품으로 승화

한 것으로, 평화와 인권의 상징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두 도시의 염원이 담겨있다. 특히 올해는 여수·순천 10·19사건과 제주 4·3사건 76주년을 맞아 민족미술인협회 여수지부와 탐라미술인협회 30명의 작가가 참여해 두 사건을 재구성한 그림·조형물 등 대형 창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를 주도한 정기명 여수시장은 “76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품고 살아온 유족들과 비극의 역사를 기억하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지역이 연대해 ‘평화·인권의 도시’로 발전해나갈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정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